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 -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전 속 영¹⁾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율성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대전의 중학교 2곳의 1, 2학년 청소년 252명(남 147, 여 105)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자율성, 불안 척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율성은 낮고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예측하는 어머니 과보호의 변인은 밀착통제, 과잉 기대, 자녀 분리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녀의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은 밀착통제, 분리불안, 투사적 과보호였다. 즉,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과잉 기대 역시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투사적 과보호는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은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자신의 자녀 분리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지나치게 아끼 취급하거나 과한 애정을 주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게 오히려 부모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불안감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나 이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발달을 저해하여 낮은 자율성이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주요어 : 어머니의 과보호, 자율성, 불안,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2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sook0830@kornu.ac.kr)

I. 서론

부모의 건강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청소년기는 점차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독립성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자녀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헬리콥터 맘’ 등의 신조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욕구 충족, 어머니 자신의 기대와 자존감 때문에 자녀를 부모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맞물려 과도한 기대와 통제가 청소년자녀들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부모의 과보호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보호가 서구의 과보호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청소년에게 부모의 과보호는 적대감 및 거부로 지각되나 한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과보호로 지각된다(Rohner & Pettengil, 1985)는 것이다. 즉, 서구의 과보호는 애정이나 돌봄과는 다른 차원인 간섭과 통제 즉, 지나친 통제의 의미가 크며, 한국 사회의

과보호는 오히려 ‘지나친 애정’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지만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 통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며(박아청, 1998),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며 통제적’이라는 연구결과(박은정, 1996)는 한국적 과보호가 서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보호 척도가 개발(정은영, 2008)되었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은영(2008)이 개발한 척도는 총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 분리불안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5가지 하위 영역 중 자녀 분리불안은 다른 과보호 하위요인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년의 불안(신민진, 하은혜, 2010)은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김성희, 정옥분, 2011)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지연, 오경자, 2011)에서는 성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이 부모의 과보호를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며, 특히 자녀 분리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정한 과보호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은영(2008)의 과보호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녀 분리불

안이 과보호 척도로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지나치게 야기 취급하는 등의 과한 애정표현은 유아기, 아동기 초기, 아동 후기, 청소년기 등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서구 사회에서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으로 인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으나, 관계 지향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일체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양육태도는 오히려 애정과 돌봄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특히, 정은영과 장성숙(2008)은 '부모의 자녀 분리불안을 이후 '과잉애정'로 명칭을 수정했으나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애정표현이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할 만큼 과하다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함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명칭의 일관됨이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한국적 과보호 척도에 대한 검증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적 과보호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명확한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과보호의 개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됨을 밝힌 연구들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불안,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음(김혜영, 2000; 문세민, 2006; 문유손, 김도훈, 2001; 송경섭, 1996;

Barker & Merskey, 1982; Bennet & Stirling, 1998; Blatt, Wein, Chevron, & Quinlan, 1979; Silove, Parker, Hadzi-Pavlovic, Manicavasagar, & Blaszczyński, 1991)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처하는 인지적 편견을 유발하기도 한다(Vasey & Dadds, 2001). 즉, 부모의 과보호로 자녀는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위험에 대해 대처하고 미리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없어 자율성의 발달이 저해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인지는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신민진, 하은혜, 2010)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주요 과업이며, 이를 통해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야하는데, 어머니의 과보호는 이러한 자율성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정서적 자율성 척도(Steinberg & Silverberg, 1986)가 개발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즉, 정서적 자율성의 획득을 발달로 보는 견해와(Douvan & Adelson, 1966) 오히려 정서적 자율성은 정서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Ryan & Lynch, 1989)이 그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자율성이 오히려 자녀의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음(김희화, 2005; 전숙영, 2007;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을 밝히고 있어 정서적 자율성은 청소년의 자율성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동기이론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 2002)은 내재 동기로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조절되고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 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어야하며, 이중 자율성이 가장 핵심이며 자율성이 보장될 때 유능감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Deci & Ryan, 2002). 자율성의 욕구가 좌절되면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발적인 동기가 낮아지면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아영, 이명희, 2008). 즉, 자율성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은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음(김은주, 2007; Deci & Ryan, 2002)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SDT에서 보는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하려는 내적 인과소재로서(Ryan & Connell, 1989),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이며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삶의 만족도와 관계 있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율성의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없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부적응 문제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 발달에도 같은 결과임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 자녀관계의 맥락 안에서 자율성의 증가는 청소년의 적응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장휘숙, 2002),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높은 자율성에 기인하며, 자율성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개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서적 자율성이 아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결정 이론에서의 핵심 욕구로서의 내재적 동기로서의 자율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로서의 자율성이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청소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그들의 자율성, 불안과의 관계를 고찰하며,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보호의 영향이 청소년의 자율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충남 대전의 중학교 2곳의 1, 2학년 남녀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147(58.3%)명, 여학생이 105 (41.7%)명이었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접어든 시기로서 자율성을 발달시켜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청소년의 자율성 척도, 불안 척도였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은영(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¹⁾은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 분리불안이며, 각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로 나누어

1점에서 4점의 점수 분포를 갖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 .903$ 이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과잉기대’는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를 측정하는 것이며, ‘과잉간섭’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얼마나 박탈하는 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요인인 ‘밀착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여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내용이며, ‘투사적 과보호’는 부모자신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태를 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분리불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잉애착으로 인해 지나친 접촉과 애기 취급하는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애정과 불안을 내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

청소년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은주(2007)가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척도를 김은주(2007)가 수정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하려는 내적 인과소재를 의미한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평소에 스스로 결정하며 나다움을 유지하는 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1) 정은영, 장성숙(2008)은 초기 척도의 개발에서 명명한 명칭 중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과잉간섭’을 ‘자율성 저해’로 ‘밀착통제’를 ‘과잉통제’로 ‘투사적 과보호’를 ‘과잉보호 및 불안’으로 ‘자녀분리불안’을 ‘과잉애정’으로 변경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가 반영되었던 처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로 나누어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의 분포를 갖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하려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 .735$ 이다.

불안

청소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Reynold와 Richmond(1978)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적인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평가도구를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역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허구척도를 제외한 2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시 문항수로 나누어 최소 0점에서 최고 1점의 범위를 갖도록 하였고,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 .865$ 이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충남 대전시 소재의 중학교 2개교의 1, 2학년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275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52명의 자료가 SPSSWIN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전반적 경향

연구문제 별 분석에 앞서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과보호 중 과잉기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밀착통제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과잉간섭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성취 등의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 1. 변수들의 전반적 경향 $n=252$

변 수		M (SD)
어머니의 과보호	과잉기대	2.45(.72)
	과잉간섭	1.44(.48)
	밀착통제	2.09(.72)
	투사적 과보호	1.89(.66)
	자녀 분리불안	1.99(.57)
	총 점	1.98(.49)
자녀의 불안		.35(.25)
자녀의 자율성		3.42(.69)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자율성, 불안과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자율성, 불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r=-.273$, $p<.0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과보호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어머니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불안과,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은 자녀의 자율성 및 불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신을 간섭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자녀의 높은 불안성향과 관계가 없으며,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신을 야기 취급하는 것과 같은 자녀 분리불안 역시 자녀의 자율성과 불안성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지나친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불안 성향을 높이거나 그 하위영역인 과잉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은 청소년의 자율성 및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과보호의 하위영역 중 자녀 분리불안 요인은 자녀의 자율성 및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어 과보호의 모든 요인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예측하는 과보호의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과보호의 5가지 하위영역인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검증결과 통계량이 2.097로

표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율성, 불안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과보호	1							
2. 과잉기대	.717***	1						
3. 과잉간섭	.652***	.203***	1					
4. 밀착통제	.867***	.584***	.452***	1				
5. 투사적과보호	.865***	.496***	.497***	.721***	1			
6. 자녀분리불안	.756***	.338***	.561***	.514***	.611***	1		
7. 자율성	-.273***	-.271***	-.127*	-.294***	-.259***	-.053	1	
8. 불안	.147**	.144*	.024	.186**	.181**	-.011	-.342**	1

* $p<.05$, ** $p<.01$, *** $p<.001$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설명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변인은 밀착통제, 과잉기대, 자녀 분리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밀착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8.3%를 설명하며,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1.1% 증가하였고, 자녀 분리불안이 투입되어 역시 1.1% 증가하여 총 10.5%가 청소년자녀의 자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밀착통제하고 지나치게 기대하며, 자녀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만 통계적 설명량이 작은 부분은 자율성이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거나 초기 청소년기에 자율성의 발달이 아직 미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과잉기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자율성은 높아지는데, 이는 과보호의 하위영역 중 자녀 분리불안의 개념은 오히려 긍정적인 개념으로 재 명명 될 필요가 있거나 과보호의 하위영역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성희, 정옥분, 2011)에서도 어머니가 자녀 분리불안을 느낄수록 자녀는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하며 긍정적 또래관계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의 '자녀 분리불안'이 청소년 자녀에게는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녀의 불안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과보호의 5가지 하위영역인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 분리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Durbin-Watson 검증결과 통계량이 1.841로 나타나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표 3.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어머니 과보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Beta	adj R ²	F
자율성	1	밀착통제	-.294***	.083	23.617***
	2	밀착통제	-.205**	.094	14.047***
		과잉기대	.151*		
	3	밀착통제	-.273***	.105	10.856***
		과잉기대	-.159*		
		자녀분리불안	.14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대한 어머니 과보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단계	독립변수	Beta	adj R ²	F
불안	1	밀착통제	.186**	.031	8.837**
	2	밀착통제	.265***	.043	6.598**
		자녀분리불안	-.151*		
	3	밀착통제	.154*	.055	5.808**
		자녀분리불안 투사적과보호	-.212*** .197**		

* $p < .05$, ** $p < .01$, *** $p < .001$

확인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 요인 중 청소년 자녀의 불안을 설명하는 것은 밀착통제, 자녀 분리불안, 투사적 과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밀착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3.13%를 설명하며,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과 투사적 과보호가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각각 1.2% 증가하여 총 5.5%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밀착통제하고 투사적 과보호를 하며, 자녀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을수록 자녀의 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불안에 대한 과보호의 통계적 설명량이 작게 나타난 것은 불안은 기질적 특성이 게 작용하는 성격적 특성이며 기타 다른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의 자율성의 매개효과

여기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그들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의 자율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세 단계의 절차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과보호가 매개변수인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과보호와 매개변수인 자녀의 자율성을 함께 독립변수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과보호가 매개변수인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73, p < .001$)과 종속변수인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47,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자율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의 자율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Beta	adj R ²	F
① 어머니의 과보호→ 자녀 자율성	-.273 ^{***}	.071	20.127 ^{***}
② 어머니의 과보호→자녀 불안	.147 [*]	.018	5.435 [*]
③ 어머니의 과보호→자녀 불안 자녀 자율성→자녀 불안	.056 -.326 ^{***}	.113	16.670 ^{***}

* $p < .05$, ** $p < .01$, *** $p < .001$

사라져($\beta = .147$, $p < .05 \rightarrow \beta = .056$, ns) 자녀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Kinnon, Warsi와 Dwyer(1995)가 통계적으로 보편화시킨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는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종속변수에 전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산출된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 값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Z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a \times b / \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검증결과 $a = -.384$, $s_a = .086$, $b = -.121$, $s_b = .021$ 이었고, $Z = 3.529$ ($p < .001$)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녀의 자율성을 통해 완전 매개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통해서만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영역 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영역 중 과잉기대,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에서 완전매개가 검증되었다. 먼저 과잉기대가 매개변인인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71$, $p < .001$)과 종속변인인 자녀의 불안($\beta = .144$, $p < .05$)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자녀의 자율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44$, $p < .05 \rightarrow \beta = .054$, ns)은 사라져 자녀의 자율성이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 설명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a = -.260$, $s_a = .058$, $b = -.116$, $s_b = .022$)를 하였으며, $Z = 3.4152$ ($p < .001$)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불안감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나 이는 자녀의 자율성발달을 저해하고 낮은 자율성 즉 의존적 태도가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독립변수 → 매개변수 회귀식: a (비표준화 계수)
 s_a (표준오차)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식: b (비표준화 계수)
 s_b (표준오차)

표 6.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영역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의 자율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i>Beta</i>	<i>adj R</i> ²	<i>F</i>
과잉기대	① 어머니 과잉기대→자녀 자율성	-.271***	.070	19.863***
	② 어머니 과잉기대→자녀 불안	.144*	.017	5.239*
	③ 어머니 과잉기대→자녀 불안	.054	.112	16.637***
	자녀 자율성→자녀 불안	-.327***		
과잉간섭	① 어머니 과잉간섭→자녀 자율성	-.127*	.012	4.125*
	② 어머니 과잉간섭→자녀 불안	.024	-.003	.1142
	③ 어머니 과잉간섭→자녀 불안	-.024	.110	16.307***
	자녀 자율성→자녀 불안	-.345***		
밀착통제	① 어머니 밀착통제→자녀 자율성	-.294***	.083	23.617***
	② 어머니 밀착통제→자녀 불안	.186**	.031	8.837**
	③ 어머니 밀착통제→자녀 불안	.093	.118	17.463***
	자녀 자율성→자녀의 불안	-.314***		
투사적 과보호	① 어머니 투사적과보호→자녀 자율성	-.259***	.064	18.050***
	② 어머니 투사적과보호→자녀 불안	.181**	.029	8.287**
	③ 어머니 투사적과보호→자녀 불안	.023	.118	17.589***
	자녀 자율성→자녀 불안	.022***		
자녀 분리불안	① 어머니 자녀 분리불안→자녀 자율성	-.053	-.001	.703
	② 어머니 자녀 분리불안→자녀 불안	-.011	-.004	.032
	③ 어머니 자녀 분리불안→자녀 불안	-.032	.111	16.378***
	자녀 자율성→자녀 불안	.02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밀착통제가 매개변인인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94$, $p < .001$)과 종속변인인 자녀의 불안($\beta = .186$, $p < .01$)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밀착통제와 자녀의 자율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86$, $p < .01 \rightarrow \beta = .093$, ns)은 사라져 자녀의 자율성이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 설명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a = -.280$, $s_a = .058$, $b = -.111$, $s_b = .022$)를 하였으며, $Z = 3.488$ ($p < .001$)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투사적 과보호가 매개변인인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59$, $p < .001$)과 종속변인인 자녀의 불안($\beta = .181$, $p < .01$)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투사적 과보호와 자녀의 자율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181, p<.01 \rightarrow \beta=.023, ns$)은 사라져 자녀의 자율성이 어머니의 투사적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 설명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a=-.273, s_a=.064, b=-.112, s_b=.022$)를 하였으며, $Z=3.269(p<.001)$ 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영역 중 과잉 간섭과 자녀 분리불안은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나,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본적인 매개효과 검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 역시 자녀의 자율성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 의미로 지각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으로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발달이 주요과업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자율성, 불안이 어떻게 관련되며,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불안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은 낮아지며, 불안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는 자녀의 불안,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됨을 밝힌 연구들(김혜영, 2000; 문세민, 2006; 문유손, 김도훈, 2001; 송경섭, 1996; 이소미, 2002; Barker & Merskey, 1982; Bennet & Stirling, 1998; Blatt et al, 1979; Silove et al., 1991)을 지지한다.

그러나 과보호의 하위변인별로 이러한 경향을 다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자율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불안과는 관련이 없으며,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은 자녀의 자율성 및 불안 모두와 관련이 없게 나타나 과보호 척도의 하위영역별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후기를 막 벗어난 청소년 초기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므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과잉간섭과 자녀 분리불안의 개념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진 뒤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영역 중 밀착통제, 과잉기대, 자녀 분리불

안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과잉 기대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발달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에서 촉진된다는 주장(김희화, 2005;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Noom, Dekovic, & Meeus, 1999)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과보호의 하위영역 중 자녀 분리불안의 개념이다. 본 연구결과 자녀 분리불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요인이 어머니 자신의 자녀 분리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지나치게 야기 취급하거나 과한 애정을 주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게 오히려 부모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비교문화연구에서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Rohner & Rohner, 1978), 한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된다는(Rohner & Pettengil, 1985)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성희, 정옥분, 2011)에서도 어머니가 자녀 분리불안을 느낄수록 자녀는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하며 긍정적 또래관계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분리불안'은 부정적인 과보호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부모가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분리시키지 못해 나타나는 과보호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애정적 태도의 측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적인 성향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서구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과보호 척도의 하위영역인 자녀 분리불안 요인은 부정적 과보호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불안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밀착통제, 자녀 분리불안, 투사적 과보호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지나친 통제와 과보호의 양육태도를 가질 경우 자녀의 불안이 조장되며,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있으며(김혜영, 2000; 문세민, 2006),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송경섭, 1996)는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과보호의 하위 영역 중 '자녀 분리불안'은 자녀의 불안을 예측하는 결과에서도 다른 과보호의 하위영역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을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이 낮아져 '자녀 분리불안'은 오히려 애정과 사랑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자율성에 미치는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분리불안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양육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이 기반이 되고 부모-자녀 일체감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이므로 이후 연구에서 청소년기를 걸쳐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적 효과를 탐색해 본 결과 청소년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

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율성을 통해서만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불안감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나 이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발달을 저해하여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자율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의 획득은 인생 전반에 걸쳐 유능감과 긍정적 관계성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중요한 발달과업이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 결과 중심적인 가치관들의 팽배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통제, 간섭으로 인한 외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자율성 획득의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성인자녀의 우울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김지연, 오경자, 2011)에서도 높은 과보호적 양육은 성인자녀의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인간은 성장 발달하는 동안 위험 요인에 적절히 노출되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나 자율성을 발달시켜야하는데(Howard, 1996; Knutson, 1995; Kolbo, 1996), 부모의 과보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출을 차단시켜 우울이나 불안에 취약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요인과 자녀의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어머니의 과보호 하위 영역 중 과잉기대,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에서만 완전매개가 검증되었으며, 과잉간섭과 자녀 분리불안은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불안에 영향을 줄만큼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지나치게 아끼워주며 애정을 보이는 자녀 분리불안 역시 앞서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오히려 돌봄과 애정으로 지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연구결과의 축적을 통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가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돌봄과 애정’으로 지각할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과보호와 자녀가 지각하는 과보호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초기의 중

학생으로 자율성의 발달이 아직 과도기에 놓여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확립되어 가는 자율성의 발달이 아직 미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영향력이 청소년 후기와 차이가 날 가능성 있으므로 청소년 전기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성적인 성숙과 과정중심의 가치관 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결과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초기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적 성취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릇된 양육 방식인 부모의 과보호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자율성 발달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과보호 척도(정은영, 2008)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이들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 청소년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잘못된 양육방식인 과보호는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자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율성 발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을 규명함으로써 부모 교육 및 상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사회적인 차이가 고려된 한국적 과보호 척도의 개발(정은영, 2008) 이후 이루어진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연구(김성희, 정옥분, 2011; 김지연, 오경자,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와 더불어 한국적 과보호의 개념 확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정은영(2008)은 초기 개발한 과보호의 하위 요인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데, 특히 하위 요인 중 어머니의 자녀 분리불안을 과잉애정으로 수정하면서 한국판 과보호 척도의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하기 전인 초기 개발에서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척도 개발 시 사용된 이론적인 근거가 더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한국판 과보호 척도의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개념 확립의 필요성을 제공하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보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올바른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청소년의 건강한 자율성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 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2), 151-168.
- 문세민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위축행동 및 우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유손, 김도훈 (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연관성: 서울 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37-244.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2-73.
-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경섭 (199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Barker, B., & Merskey, H. (1982). Parental representations of hypochondriacal patients

- from a psychiatric hospit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233-23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net, A., & Stirling, J. (1998). Vulnerability factors in the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 311-321.
- Blatt, S. J., Wein, S. J., Chevron, E., & Quinlan, D. 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88-39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atinium.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 determination research*.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ochester New York.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NY: Wiley.
- Howard, D. E. (1996). Searching for resili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Theoretical issues.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18(4), 254-262.
- Knutson, J. F.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Puta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3), 401-431.
- Kolbo, J. R. (1996). Risk and resilience among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Violence Victimization*, 11(2), 113-128.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 41-62.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H.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Reynold,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 Rohner, E. C. (1978). Unpublished research data.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on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2), 340-356.
- Silove, D., Parker, D., Hadzi-Pavlovic, D., Manicavasagar, V., & Blaszczynski, A. (1991).

-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 835-841.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 Vasey, M. W., & Dadds, M. R. (2001).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anx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2. 10. 6.
수정원고접수 : 2012.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2. 12. 3.

Mother's Over-protectiveness and Adolescent' Anxiety - The Effects of Mediation on Adolescent' Autonomy -

Sook young, Chun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veness and adolescent' anxiety.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our study of this relationship,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sible effects of mediation on adolescent' autonomy. The subjects consisted of 252 1st and 2nd graders of middle school (147 boys and 105 girls) residing in Chung Nam Dajeon city in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a mother's over-protectiven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adolescent' autonomy, and anxiety to a significant degree. Adolescent' autonomy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over-protectiveness and adolescent' anxie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dolescent' autonomy may function as a pathway between a mother's over-protectiveness and adolescent' anxiety.

Key words : mother's over-protectiveness, autonomy, anxiety, effects of mediation